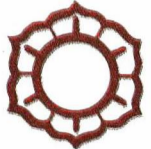


卽身成佛의 大道—密敎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

총지종보

거짓말어 하는자는
신용없고 빈천하며
이간양설 하는자는
다툼으로 불화한다. - 종조법설집 -

제 10 호

등록번호 마-2360호
등록일자 1995. 8. 29

서울 강남구 역삼2동 776-2
(우) 135-082

발행인 안 중 호
편집인 이 중 석
인쇄인 김 규 석

대표전화 (02)552-1080
발행인실 (02)562-8823
편집국 (02)508-8933
광고신청 (02)552-1081
구독신청 (02)552-1083
팩스 (02)552-1082

주요기사 안내

- 1 면 · 시국법문
- 2 면 · 통리원장 담화
- 3 면 · 서동석 칼럼
- 4 면 · 불교개설 2 · 지상설법
- 5 면 · 밀교개론7
- 6 면 · 교화영험담
- 7 면 · 총지도량순례(개천사)
- 8 면 · 이런 불자

행사안내

- **진호국가 불사 회향**
 - 4월 8일 (수) 오전 10시
 - 장소 : 각 사원 서원당
- **삼밀사 헌공 불사**
 - 4월 16일 (목) 오후 2시
 - 장소 : 부산 삼밀사
- **춘계강공**
 - 4월 20일~23일
 - 장소 : 본산 대강당
- **칠성전망대 점등식**
 - 4월 23일 (목)
 - 참석자는 당일 오전 8시까지 총지사로 집결 바람

경제 난국 불심으로 극복하자

대자대비 보살심을 이웃에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신념으로 정진해야 한다.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도 함께

이제는 완연한 봄이다. 봄꽃들은 어김없이 다시 피어 계절이 바뀌었음을 알리고 있지만 얼어 붙은 우리네 현실은 쉽사리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역대 위정자들의 실정으로 경제는 바닥이 나고 세계를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나라의 체면은 구겨져버렸다. 경제가 바닥난다는 사회 지도층들의 부패가 가장 근원적인 것이지만 우리들도 거기에 부화하여 자신을 망각하고 같이 날뛰었던 잘못도 있다. 지금의 이 난국은 단순한 경제적인 것만은 아니다. 실은 뿌리 깊은 부패구조 속에서 사회 전반이 총체적으로 도덕성을 상실하고 극도의 이기주의로 무장한 채 파멸을 향해 치달고 있는 형국이다. 천천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

신적 지주가 되어 왔던 불교를 박대하고 서양의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종교에 매달려 날뛰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을 진작에 간파했어야 했다. 한나라의 지도자가 민족혼은 어디에 팔아버리고 남의 종교에 정신을 팔긴 채 세계화다 국제화다 해서 국민을 눈가림으로 속여 온 것이 오늘의 이 난국에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불자들은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누구의 잘잘못만을 가리며 세월을 보내기에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급박하다. 정계와 관계의 뿌리 깊은 부패상을 외면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더욱 급한 것은 나라 전체가 부도 위기에 직면해 있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 경제를 살리는 일이다.

이에 우리 총지종에서는 불자로서 이러한 난국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내어 놓고 교도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생활 불교>, <실천불교>로서 우리 종도들은 변함없이 자기의 위치에서 열심히 생활해 왔지만 여기에 더하여 이웃을 돌보는 대자대비의 보살심을 더욱 발휘하여 나라살리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에서는 각 사원에 시달린 공문을 통하여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장했고 사치풍조 배격과 물자절약, 그리고 환경보전의 차원에서 재활용품 활용에 앞장설 것을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우리 종단이 주도하고 있는 종단협의회 산하 불교소비자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실직자들의 힘든 '오투기 모임터'를 개설하여 이 용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 위기는 활용하기에 따라서 더할 나위 없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여 무분별하게 살아 왔던 지난 날을 반성해보고 그 동안의 나쁜 습관을 모두 버려야겠다. 그리고 더욱 공고히 불심을 다지며 불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이웃을 보살피는 보살도를 실천해야겠다.

시국법문

현실이 주는 법문을 살아는 불자가 되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 안 효 강

30여년 동안 오로지 경제성장의 수치를 좇으며 꾸러온 국가경제가 파탄에 이르러 그 성장의 이면엔 도사리고 있던 갖가지 부작용이 큰 과장으로 우리 사회를 흔들고 있다. 지진의 위험이 없는 지역에 갑자기 높은 진도의 지진이라도 온 것처럼 사회 곳곳에서 구제금융시대의 요동으로 일상 생활에 큰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세계 11위의 무역국가였으나 그 내용은 엄청난 외국빚으로 쌓아올린 신기루라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고보면 우리 나라 국민은 정부나 재벌 등이 만들어 놓은 신기루에 현혹되어 그야말로 거품 투성이의 생활 속에서 안위를 찾은 셈이다. 과거 대물림으로 내려 온 가난이 너무도 지겨운 나머지 비록 거품일 망정 풍족한 생활을 누리게 되었다는 현실의 기만에 모두가 간신히 넘어 간 결과 정신적 육체적 공황을 맞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그저 소득이 줄고 따라서 조금 먹고 사는 것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차원의 성질이 아니다. 지금의 경제 파탄은 그간 물질적 욕망에 집착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사고의 근본부터 재갈피를 잃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결과 늘어난 욕망의 공허함을 메우지 못해 엄청난 자기 사건이 속출하고 강력사건이 폭증하게 되었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들의 소식이 거의 매일 들리고 있는 것이다. 허상에 속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가를 현실은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속담에 광에서 인삼난다고 하였다. 사흘 굶은 끝에는 국수 한가락에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 충족은 인간의 심성이나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그 정도가 지나쳐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는 차원까지 이르면 인간성은 이미 추악해질대로 추악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물질적 충족은 더욱 더 많은 충족을 노리게 되는데 그 추구는 일정한 한계가 없다. 칼 차면 말 타고 싶고 말 타면 말잡이를 부리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므로 옛 성인들은 한결같이 이 허망한 물질적 욕망에 대해 경계하고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이르렀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일생이 위대한 것은 다른데 있지 않다. 나의 사고를 지배하는 온갖 경계, 즉 자연과 인간 그리고 못생김 등 나를 에워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 지극히 낮은 자세로서 겸허하되 비굴하지 않고 애정을 갖되 집착하지 말며 이치에 맞게 판단하되 분별심에 사로 잡히지 말 것을 당신은 곧이 곧대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다.

지금 이 국가경제의 어려움은 바로 지난 시절 허상에 속아 살아 온 우리에게 부처님이 따끔한 법문을 주시고 있다고 받아 들여야 한다. 그림자에 속아 살아 온, 거품이 실체인양 착각하고 살아 온 이들에게 부처님은 진지한 경계를 주시고 있는 것이다. 무릇 경전에 이르시길 '조그만 즐거움을 버리고 커다란 즐거움을 얻으려 한다면 깨우침의 큰 즐거움을 위해 작은 즐거움을 버려라(법구경)'라 하였다. 참으로 순수한 즐거움과 그 어느 것에도 걸림이 없는 자유를 얻으려면 현실이 주는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할 것이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종

헌공 불사 공고

삼밀사 신축 헌공불사를 아래와 같이 봉행하고자 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총기 27년 4월 16일(목) 오후 2시

2. 장 소 : 부산 삼밀사 2층 서원당

부산시 영도구 영선 1가 122-1 전화 : (051)416-9835

불교 총지종 통리원장 총지화



사설

기대가 허물어져서는 안된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넘고 있다. 비유하자면 이제 막 발을 떼고 있는 현 정부의 행보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거론한다는 것은 상당히 앞지른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문민정부를 자처하던 김영삼정부의 초기 행보가 시일이 지날수록 국민의 기대와는 전혀 어긋났었다는 점을 반추하여 볼 때 지금의 행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에 몇가지 점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따지고보면, 지난 해 12월 대통령 선거 직후 김대중씨는 당선자로서 거의 김영삼씨를 대신하여 국정을 이끌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출범은 한 달을 넘기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석 달을 넘기고 있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김대중씨는 무엇보다 경제난국의 타개를 위해 참모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왔고 현재도 그러하다. 그의 노력과 국민적 공감으로 국가부도의 위기를 점차 벗어나고 있으며 외환보유고도 상당 수준 호전되어 환율의 안정과 고금리 정책의 수정 등 실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던 과거 잘못된 국가정책의 전면적인 개혁은 말 따로 실행 따로 떨어져 과거 이 정부도 과거 정부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된다. 방만한 정부 조직을

개선한다고 하면서 부서의 이름만 개명하여 그대로 존치 시키고 있는가 하면 논공행상에 따른 인사로 문제가 되고 있다. 벌써부터 군부를 비롯하여 검찰 등 정부 산하 기관에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들이 주효를 차지하는 것이 구설수에 오르다보면 도대체 '국민의 정부'라고 불리울 명분은 없다. 게다가 편향 없는 종교 정책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한 약속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 각료들이 특정 종교 일색이고 '해병대를 예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사령관의 발언이 나오는 등 김영삼정부 초기 현상과 진배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93년 4월의 육군17사단 전차대대의 핵불만행 사건이 새삼스럽게 불교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라는 점을 현 정부는 잘 알아야 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개혁을 미적거린다면 국가 경영의 위기는 도저히 해소할 수 없음을 이미 나라 안팎에서 입증된 바 있다. 김영삼씨는 국민의 여론과 올바른 정책을 실천하지 못하여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그의 실정을 비판하여 큰 망신살을 샀다. 정부의 실책으로 말미암아 국민이 고통 받는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현 정부는 국민의 지지와 기대에 부응하여 정부, 재벌, 관료사회를 확실하게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종단발전에 박차를

죽신성불의 태도를 열기 위하여 정통불교의 가치를 높이 내걸고 창조한 우리 총지중도 여년간 30성상을 바라보고 있다. 그동안 철저한 실천불교, 생활불교로서 불교계의 귀감이 되어 왔으며 엄격하게 계율을 지니어 재가불교임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오랜 종단이 감히 알잡아 보지 못할 정도의 명성을 얻어 왔다. 짧은 연륜에도 불구하고 국내 유수의 불교 종단 반열에 오른 것도 오로지 말법에 의지하여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법을 펼쳐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40여개에 달하는 사원을 확보했고 종단의 기틀이 손색없이 다져졌다고 자부해 왔으나 최근 들어 초창기의 요원의 불꽃처럼 일어나서 그러한 교세 확장의 여세가 상당히 무디어진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이것은 일선에서 교화를 담당하고 있는 승직자들의 한결 같은 의견이다. 그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우선 들어 볼 수 있는 것이 사회적 여건이 참종 당시와 지금은 여러모로 달라졌다는데 있을 것이다. 물질의 풍요와 과학의 발전, 그리고 지식의 향상과 함께 종교에 의지하는 마음도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제는 과거와 달리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빈곤, 질병 등 일차적인 고통으로부터의 벗어남이 아니라 좀더 고차원적으로 마음을 의지하고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여 거기에 충실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데로 옮겨가고 있다. 불법의 근본진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지만 중생들의 근기 여하에 따라 서법을 전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하는데 우리 종단의 여가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감이 있다.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중생교화의 정열이 과거와 같지 못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초창기의 여러 스승들

이 신명을 돌보지 않고 말법으로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불철주야 노력한 결과 오늘의 총지중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오늘의 교화여건은 과거보다 결코 못하지 않을진대 교화부진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지 않고 외부의 탓만 하는 것은 깊이 반성해 보아야 할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세 발전의 장에서 가장 큰 원인이 이상의 두가지라고 보면 그 대응책은 자명하다. 먼저 과거의 인습에 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문호를 개방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수행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식 법회를 통하여 전 교도가 함께 호흡하며 결속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종교적 장중함을 한껏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하루 빨리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법회 방식에 엄숙함을 더하는 것과 함께 대중이 가벼운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문제, 그리고 불단과 사원의 정엄 등이 포함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종조가 세운 법통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교의 장점을 더욱 드러내고 대중으로 하여금 신심을 고취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원로 스승들의 자발적인 유도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종단발전의 초석이 되어 온 원로 스승들의 교화에의 정열을 분발히 승직자는 물론 전 중무원이 초창기의 순수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진정한 불자로서, 금강대승으로서 우리 총지중을 건설하고 키워나가는 데 신명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종단의 발전이 이끌어 갈 인재양성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 상호간의 신뢰와 화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은 두말 할 나위도 없다.

특별담화

경제난국 타개에 우리가 앞장서자

근면 검소와 절약하는 습관으로 위기 극복을



총리원장 총지화

전국의 전수·정사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철주야 교화에 전념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의 우리나라는 그 어느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각계각층의 많은 잘못이 있었지만 이제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에는 우리의 사정이 너무나 급박합니다. 이에 우리 종단에서는 이러한 국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신적 지주가 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지만 현실적으로도 손쉬운 것부터 실천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나라와 중생의 은혜에 보답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물자 절약에 앞장 섭시다. 그동안 우리가 알게 모르게 행해 왔던 무분별한 소비행태는 외국인으로 부터도 많은 비웃음을 샀습니다.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훨씬 높은 여러 선진국들도 절약하는 습관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

습니다. 우리가 남의 눈만을 의식하여 유명상표나 값비싼 것만 찾았던 어리석은 행태는 이 기회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품질을 중시하는 실속있는 소비를 하므로서 개인 경제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턱없이 높은 물가의 거품을 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물가가 내려 갈 뿐만 아니라 건설한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나라의 경제도 아울러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와 물, 가스 등 그동안 우리가 너무 흔하게 써왔던 것들도 비싼 외화가 들어가는 만큼 아껴써야 합니다. 물자를 아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 아니라 불자로서의 수행에 필요한 기본덕목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인류의 자원을 축내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절실히 각성하여 전기 한 등, 물 한방울이라도 불필요한 소비는 억제하십시오. 이러한 생활 습관은 경제가 나아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자로서 근검 절약은 수행의 기본이며 중생의 은혜

를 갚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여 반드시 실천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 물건을 아껴 쓰도록 합시다. 고쳐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고쳐 쓰고 물건을 오래 쓰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도록 합시다. 무조건 새것만 사다 쓰는 나쁜 습관은 이 기회에 반드시 고쳐도록 합시다. 가전제품을 비롯한 생활용품의 폐기는 엄청난 쓰레기를 유발하며 이것은 환경 오염의 로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것은 아껴 쓰고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도 이웃과 바꾸어 쓰며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건전한 소비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우리 종단이 앞장서도록 합시다.
셋째, 재활용품 수집에 앞장 섭시다. 무심코 버리는 종이 한 장, 강동 하나가 모두 달려를 주고 사와야 하는 귀중한 자원입니다. 분리 수거를 잘 하여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이러한 행위는 쓰레기의 양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을 방지하여 우리가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해 줍니다. 아울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도 자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줍니다.

넷째, 환경을 청결히 합시다. 특히 서원당 내부와 사원 경내를 정돈하여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합시다. 우리 종단의 사원 건물은 현교 사찰과 달라서 자칫 잘못하면 매우 난잡한 인상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가꾸고 다듬어 우리 종단의 근검절약하는 모습과 수행의 풍모를 엿보도록 하게 합시다.

종단의 방침에 항상 협력해 주시는 전국의 승직자와 교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합심단결하여 교세를 확장하고 나라 경제가 화평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십시오.

총기 27년 3월 22일

총리원장 총지화 합장

총리원 및 재단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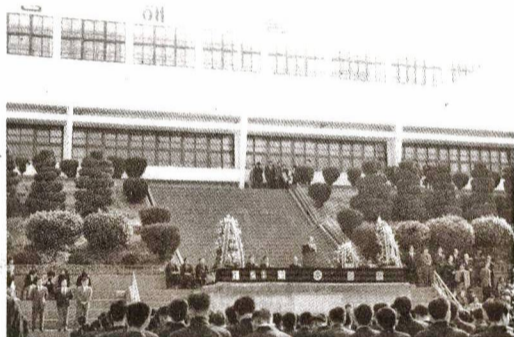
사무원(사무원장 원봉·현 수인사 주교)에서는 총리원·법정원·재단사무국에 대한 춘계 정기 감사를 이달 24일부터 26일 까지 3일간에 걸쳐 시행했다. 이번 감사에는 재단의 운영과 재정 전반에 걸친 것으로서 특히 국가 전반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건축 재정을 유도하는 쪽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감사내용으로서 주요한 것은 총기 26년도 결산 감사로서 결산금액은 43억 6천만원이었으며 대부분이 전담건설비와 포교비에 쓰여졌다. 총리원 감사에서는 전년도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평가하고 총무부, 재무부, 사회부, 교정부에 대한 관련서류와 총무행정 전반에 걸친 점검이 있었다. 법정원에 대한 감사에서는 연구계획 및 연구성과의 평가가 있었으며 연구원 총원과 처우개선, 효율적

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재단사무국의 감사에서는 각 사원 토지 및 건물관리, 보수 유지상태 등 종단 자산관리에 대한 전반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번 감사를 주도한 사무원장 원봉 대정사는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국민의 고통이 더해가는 이때에 부처님의 정재를 사용함에 있어 추후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되겠으며 지극한 불심을 바탕으로 모든 총무 행정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총지화 총리원장은 금번 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속히 시정하도록 하겠으며 사무원의 의견을 중무에 적극 반영할 것은 물론 종단의 발전과 총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누구의 조언도 거부하지 않고 적극 수용하겠다는 개방적인 자세를 보였다.

부산 자석사 신축 예정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자석사(주교 법상인 전수)의 신축이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단 사무국에서는 자석사의 신축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 놓고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사무국에 따르면 신축될 건물은 연면적 1360㎡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규모이며 아울러 지상 2층의 요사채도 신축되는데 총공사비는 12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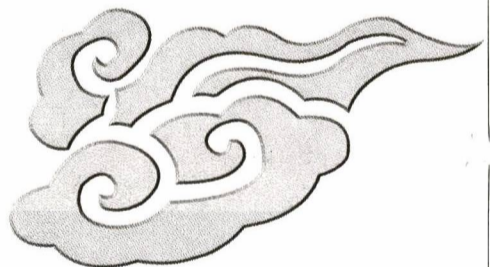
동해중학교 졸업식 및 입학식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종립 동해중학교(교장 김병준)의 졸업식이 지난달 13일 본교 교정에서 거행되었다. 재단 이사장과 총리원장 및 부산 지역 승직자 대표, 그리고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된 이번 28회 졸업식에서는 총 397명의 졸업생이 배출되었다. 이로서 지금까지의 졸업생 총수는 13,132명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날의 수상자로는 이사장 상에 이재범 군, 학교장 상에는 강형구·장태영·백운선 군, 육성회장 상에는 최중수 군이 수상했다.

한편 3월 5일에 거행된 입학식에는 총 299명의 신입생이 들어와 동해중학교의 규모는 재적학생 949명에 24학급으로 편성되었다.

삼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 | | | | |
|-------|-----------------------|-----|----------------------|
| 회 장 | 송 월 주/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 이 사 | 김 혜 정/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
| 수석부회장 | 홍 인 곽/대한불교태고종 총무원장 | 이 사 | 손 금 광/대한불교진언종 총무원장 |
| 부 회 장 | 전 운 덕/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 이 사 | 이 법 덕/대한불교용화종 총무원장 |
| 부 회 장 | 김 성 초/대한불교진각종 총무원장 | 이 사 | 이 혜 우/대한불교법륜종 총무원장 |
| 부 회 장 | 김 월 서/대한불교조계종 초심호계위원장 | 이 사 | 이 대 화/대한불교본원종 총무원장 |
| 부 회 장 | 방 지 하/중앙승가대학 총장 | 이 사 | 윤 송 정/대한불교조동종 총무원장 |
| 부 회 장 | 이 흥 파/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 이 사 | 신 혜 안/대한불교여래종 총무원장 |
| 이 사 | 김 대 호/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 이 사 | 윤 일 오/대한불교대승종 총무원장 |
| 이 사 | 정 혜 일/대한불교보문종 총무원장 | 이 사 | 김 무 찰/대한불교일부선교종 총무원장 |
| 이 사 | 송 보 인/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 이 사 | 이 청 봉/보국불교염불종 총무원장 |
| 이 사 | 총 지 화/불교총지종 총리원장 | 이 사 | 권 성 우/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
| 이 사 | 정 법 료/대한불교법상종 총리원장 | 이 사 | 김 해 공/대한불교열반종 총무원장 |
| 이 사 | 송 무 진/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 이 사 | 김 광 태/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
| 이 사 | 전 남 정/대한불교총화종 총무원장 | | |

삼밀사 헌공불사 4월에



부산 영도구의 삼밀사(주교 의강)가 신축을 끝내고 헌공불사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1월 20일 부산경남 교구의 승직자와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존 불사를 마친 삼밀사는 그동안 신축과정에서 이웃 교회측의 터무니 없는 방해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나 우여곡절 끝에 완성을 보게 되므로 그동안 신축을 염원하던 삼밀사 교도들에게 더 없는 기쁨을 안겨 주게 되었다. 이번에 신축된 삼밀사는

연면적 1200㎡의 지상 2층, 지하 1층의 본당을 비롯하여 부속건물로서 2층 규모의 요사채로 이루어져 있다. 총공사비 17억원이 소요된 삼밀사는 내부 시설에도 만전을 기했으며 특히 음향과 조명 시설에 많은 배려를 하여 경건한 분위기가 유지되도록 했다. 헌공 불사는 오는 4월 16일 2시에 종단 간부 및 부산·경남지역의 승직자와 외부 초청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치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중학교 이사회, 종립학교의 위상 찾기를

학교법인 대동학원(이사장 수성 최봉해·현 개천사 주교)의 이사회가 지난달 11일 동해중학교 교장실에서 개최되었다. 금번 이사회에서는 동해중학교의 운영에 있어 종립학교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으며 이에 대한 조치로 학생들의 특별활동 시간에 불교학생반을 특별 지원하는 문제와 종교시간 개설 및

불교과목 교과서 편찬 등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종립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며 총리원장인 총지화 지수는 이에 대해 늦은 감은 있지만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법정부에서는 종립학교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중이며 교재편찬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성전망대 점등식 4월 23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본 종단과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강원도 0사단의 철성 전망대 점등식이 4월 23일(목)에 있을 예정이다. 춘계강공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거행되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교의 승직자와 각지역 교도대표가 참석하며 호국기원 법회와 함께 점등식, 다과회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0사단의 연등 봉축을 위하여 그동안 불교측에서는 교회와 공동으로 전망대의 철탑을 사용해 왔으나 최근 본 종단이 0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뒤 군포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되자 기독교를 주장하는 교회측의 반대로 더 이상 철탑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본 종단에서는 군포를 위하여 불탑을 세우기로 결정을 하고 이에 따른 부지 선정과 불탑 건립에 대한 디자인을 다각도로 검토중이다. 총리원 담담자에 따르면 순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는 0사단의 포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법사를 파견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이며 이 이외에도 미래의 불자 양성이라는 대명제에 0사단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서동석 칼럼

문혔던 사건에서 얻는 교훈

서동석(전 민불련 의장)



국회의사당 마당을 가득 메운 인파의 열렬한 박수를 받으며 제15대 대통령 취임식이 치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신임 대통령 취임사를 밝히던 김대중씨는 자신이 겪었던 참담한 시절의 기억이 복받쳤는지 중간 중간 말문을 끊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호남 사람들 역시 지난해 12월에 치루어진 선거에서 그가 당선되자 환호와 함께 어떤 이들은 평평 울었다고 하였다.

한이라면 한일 수 있는,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겪었던 지역적 소외와 80년 신군부에 의해 자행된 광주 학살의 가혹한 역사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들의 상징적 인물이 국가권력의 수반으로 나섰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동을 주었을 것이다. 그런 심정을 그저 지역적 특성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속 좁은 처사일 터이다. 우리의 현대 정치사가 가져온 비극의 한 단면이 빚어낸 특수성이기에 이참에 그런 특수한 사연이 잘 여문 열매가 터지듯 가슴 속의 응어리가 완전히 해소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있으면서도 권력자의 눈치에 짓눌려 제대로 뻗어가지 못한채 비밀을 지켜야 했으니 그들의 성격이 정상적일 리 만무하다. 나라 안팎에서 사건과 관련한 진상을 밝히려는 여론이 비등했어도 그들은 이 비밀을 지켜왔다. 국가의 안보를 위한 일이라고 항변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선'에 불과하다. 그 위선이 자신들의 성격을 망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은 정상을 벗어났고 있다. 입김급 귀는 당나귀 귀라고 대밭에서 큰소리로 외치던 옛날 이야기 속의 인물보다 못한 '못나기'들이 그들이다.

부처님이 이르시길 '항을 썬 종'이어서는 항내가 나고 생선을 썬 종에서는 비린내가 풍긴다'고 하였다. 국가 안보라는 구실을 내세워 부정과 부패를 감춘 사회가 온전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비밀경찰과 국민을 사찰하는 기구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그 운명은 비극으로 막을 내렸다. 한 시대가 지나 그 숨겨진 비밀이 밖으로 드러나면 그 후유증은 더욱 심하기 마련이다. 오래도록 국민의 머리에 남는, 항을 썬 종처럼

'열린 정부와 건강한 정치의 실현을 기대'

인동초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김대중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우리 사회에는 몇가지 눈에 띄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적 단합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한국의 민주화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제고되고 있고 또한 반세기 동안 정권의 비호를 받던 정보기관의 비밀도 하나 둘 밝혀지고 있다. 철이 바뀔 때마다 느끼는 신선한 변화의 기운을 한국 정치에서도 받고 있는 셈이다.

만일 이번 선거에서도 여권의 후보, 혹은 그와 비슷한 성향을 가진 후보가 당선되었다면 어쩌면 영원히 권력의 장막에 가려졌을 사건이 최근 사건의 진상과 그에 관여했던 인물들 등등 속속 밝혀지고 있다. 73년 8월에 있었던 '김대중남치사건'의 진상이 25년만에 햇빛을 보게된 것은 반세기동안 진정할 교체가 없었던 정권의 실체를 알게하는 '변화'의 성과가 될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박정희정권에서 중앙정보부장을 지냈던 김형욱은 자신이 미국에서 정치적 망명생활을 하던 중 77년 미국 하원 프레이저청문회에 출두하여 이 사건은 한국의 중앙정보부가 납치 및 암살을 기도한 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런 증언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오히려 김형욱이 한국정부를 음해하기 위해 위증한 것이라고 딱 짚아 뺐었다. 결국 이 증언으로 말미암아 김형욱도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된 채 오늘까지 그 생사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국내의 여론은 그 역시 박정희에 의해 납치 암살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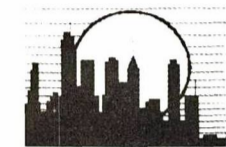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대중남치사건에 관여한 사람은 총 46명이라고 한다. 적지 않은 사람이 25년 동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다. 그간 그들이 겪었을 심리적 갈등은 어떠했을까. 분명한 사실을 알고

모두가 좋아하는 정권이 되려면 비밀이 적은 정부가 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정부의 추악한 위선이 드러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국민의 불행은 그런 위선 투성이의 지도자가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떠벌리는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출범하고 난 직후 삼식적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 안기부의 '북풍공작'도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반드시 한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

이 사건은 도무지 이 나라에서 '안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하려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나라 국민이라면 어려서부터 끝수에 박히도록 '북한은 국가를 침략하며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적화 통일하고자 호시탐탐 도발을 일삼는 집단'이라고 배웠다. 그런 집단이기에 북한에 대해 조금만 좋게 얘기해도 당장 이적행위로 욕고를 치뤄야 하고 북한 주민과 직간접적 접촉 하면 '간첩'이 되어야 했다. 형벌도 엄청나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법과 제도가 아니라에 엄연히 존재하여 왔다. 이 법에 의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거나 무려 삼 사십년씩 징역을 산 사람도 수 두룩하다. 그런데, 진짜로 국가권력의 핵심에서는 그런 '반국가단체'와 밀거래를 하여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였다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인동초처럼 살아나 마침내 대통령이 된 현실에도 취되어 과거 의혹에 찬 사건만 진상을 밝혀서는 후일 어떤 비판을 받게 될지 모른다. 비밀스러운 정부가 되지 않으려면 음식에서 저질렀던 비형의 철저한 교정과 함께 자신의 정권도 국민의 신뢰로 다져지도록 '열린 정부, 건강한 정치'의 실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소보위 소식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공간

'오뚜기모임터' 개설

작년 10월 이후 심각한 경제난국의 여파로 하루 1만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3월 현재 실업자는 약 15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를 면치 못할 경우 우리나라 실업자의 수는 무려 2백만을 넘을 것이 확실하다. 근로의 의지가 있음에도 기업의 도산과 정리 해고 등으로 거리를 방황해야 하는 실직자들이 이 상태로 방치한다면 대단히 위험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농후하다. 벌써 강력 범죄의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다.



실 한편을 새롭게 배치하여 실직자의 재기를 돕는 공간 '오뚜기모임터'를 개설하였다. 이미 오뚜기모임터를 개설하기 이전부터 대기업의 홍보로 쓰러진 유망한 중소기업 삼우회화회의 배호성사장과 같은 회사 직원들이 소보위 사무실을 임시 연락처로 이용하고 있었다. 불교계에서는 최초로 실직자 모임을 개설하였고 이후 자비의 컴퓨터(불암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길상사) 등이 속속 만들어져 타 종교에 비해 상당히 적극적으로 최근의 실직 사태에 대한 대안 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일부

공하였다. 방송사와 경영계가 대규모의 고용박람회를 연일 개최하고 있으나 실제 취업 알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뚜기모임터의 성과는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보위는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불교계 실직자 지원 시설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뚜기모임터에는 유사한 시설을 개설하고자 하는 교계 내외의 단체 등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 직접 내방 견학과 전화로 상담을 구하고 있으며 정계 인사와 복지단체 임원 등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어 총지중보의 사회적 기여도가 월등 제고된 것을 느낄 수 있다. 교계 언론은 물론 KBS, SBS 등을 포함 각 일간지에도 수차례 보도되어 총지중보의 위상에도 큰 도움이 된 바 있다. 모임터 운영에 따른 경비와 인력 지원의 어려움이 있어 모임터 후원회원과 자원봉사요원 등의 도움이 절실히 요구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통불교 불교총지중

삼밀사 헌공을 봉축합니다



총지(總持)는 오직 묘한 약이요
하늘의 감로와 또한 같아서
미혹된 병을 능히 고치니
먹는 자 항상 안락하리라

- 반야경 -

불교 총지중 신정회

불교개설 2

석존 당시의 사상가들 - 육사외도 -

대현 (법장원 연구원)

1. 전환기의 혼란상과 자유사상의 발생

기원전 5~6세기경이 되면 인도문화의 중심지가 갠지스강의 중류로 옮겨지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군소국가들이 대국가로 병합되는 추세로 나아가, 크샤트리아 계급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상공업의 발달로 바이샤 계급이 경제적인 부(富)를 장악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은 재물이 행복을 보장한다고 믿게 되고, 향락적인 생활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되어버린다. 계급제도 등 전통적인 질서와 윤리의 파괴로 사회는 극히 혼란한 상태로 빠져버리는 것이다.

갠지스강 중류는 아리아족의 근거지 서북인도에서 볼 때 변경이 없으나, 왕족을 중심으로 한 신봉세력이 일어나고 있었고, 사상적으로는 자유사상이 가장 활발한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는 전통적인 바리문 사상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생겨 많은 반전통적인 자유사상가들이 배출되었다. 석존도 인도사상사에서 볼 때는 그 중의 한사람이며, 불교에서는 불교이외의 이단사상가들을 육사외도라고 불렀다.

2. 육사외도(六師外道)

이러한 당시의 사회에서는 윤리도덕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자유 사상가들이 있었다. 그 대표자는 푸라나 카샤피이다. 그는 선(善)과 악(惡)의 구별이란, 인간이 거짓으로 정한 것이요, 진실로는 실재하지 않는 것이며, 업(業)에 대한 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도덕관념을 부정했다.

파루다 차차야나는 유물론적인 사람으로 그 역시 선악업이나 그것의 과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에 의하면 인간의 각 개체는 일곱 가지의 집합된 요소, 곧 地·水·火·風의 4원소와 苦·樂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막칼리 고살라는 처음에는 자이나교의 교조인 마하비라와 함께 수행하였으나, 나중에 그와 헤어져 자신의 독자적인 교설을 형성한다. 고살라의 설에 의하면,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로서 영혼·地·水·火·風·허공·得·失·苦·樂·生·死의 12종이 있다. 여기에서 허공은 다른 11개의 요소를 성립시키는 장소다. 득·실·고·락·생·사라고 하는 6종은 이들의 명칭으로 불려지는 현상 작용을 가능케 하는 원리를 실제로 본 것이다.

또한 영혼과 다섯가지 원소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二元論의 입장이지만, 그 영혼은 물체와 같이 생각되고 있으므로 유물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인간만이 아니라, 일체의 생명 있는 것의 운명에 관해서는 숙명론(결정론)의 입장에 서고 있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일체의 생물이 운회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無因無緣이며, 그들이 해탈하는 것도 무인무연이다. 또한 그는 운회의 기간은 예정되어 있으며(8백40만 대겁),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도 부정하고, 개인의業에 의한 인과응보도 부정하여 철저한 결정론(숙명론)의 입장에 섰다. 네 번째 인물인 아지타 케사캄발리는 도덕부

정론의 철학적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다. 그에 의하면 地·水·火·風의 4원소만이 참된 실재요 독립상주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이들 원소가 존재하여 활동하는 장소로서 허공의 존재도 인정했다. 물론 인간도 이들 4원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죽으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던 地는 외계의 地의 집합으로 돌아가고, 水는 수의 집합으로, 火는 화의 집합으로, 風은 풍의 집합으로 돌아가서 모든 기관의 능력은 허공으로 돌아가며, 인간은 죽고 나면 없어지는 것으로서 몸 외에 죽은 뒤에도 독립하여 존재하는 영혼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현재도 내세도 존재하지 않고, 善業이나 또는 惡業을 지었다고 하여 그 과보를 받는 일은 없다고 하여 그는 철저한 유물론자로서 물질이외의 영혼이나 정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은 인도

의 유물론을 차르와카라고 부르는데, 후세의 문헌에도 그 이름이 자주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오래도록 그 유포가 남아 있었던 듯하다.

다섯 번째로 산자야 벨라티푸타는 회의론(懷疑論)자로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거나 서술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주장만 진리라고 다른 사람의 설은 오류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세상에는 서로 다른 진리가 얼마든지 있게 되어 곤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주장들은 모두 주관적인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유일한 객관적인 진리가 인식되어 질 수 없다면, 서로 주관적인 주장을 내세워 논박해도 쓸데없는 것이다. 차라리 그러한 말장난을 버리고 是非善惡의 판단을 중지하는 가운데 진실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유효하다고 하여 不可知論的 懷疑論을 주장하였다. 석존의 뛰어난 두 제자인 사리불과 목건련도 본래 이 산자야의 제자였는데, 석존이 깨달음을 얻은 다음 해 왕사성에 왔을 때 석존의 말씀에 감명을 받아 동문 250인과 더불어 석존의 제자가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산자야는 업보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하지도 않아 철저한 회의론의 입장을 고수했다.

마지막 여섯 번째의 스승은 자이나교의 교조인 니간타 나타푸타이다. 니간타 나타푸타는 '나타족의 출신자'라는 뜻으로 그의 본

명은 바르다마나(Vardhamana)이고, 크게 깨달음을 얻은 뒤에는 마하비라(Mahavira)(위대한 영웅)라고 존칭되었다.

〈자이나〉라고 하는 말은 '지나(Jina)(勝者)의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그는 인과업보를 인정한 운전파였으며, 비정통파중에서는 자이나교가 불교 다음으로 위대한 활약을 하였으며, 그 후에도 세력을 계속 유지하여 현재까지도 인도 본토에 많은 신도를 가지고 있다.

자이나교는 불교와 같은 시대에 거의 같은 지방(인도 동북부)에서 같은 계급(왕족)의 출신자에 의해 창시되었다. 그러므로 교리도 비슷한 점이 있고, 신화나 전설에도 공통적인 것이 적지 않으며, 교단의 구성도 유사하고, 수행을 완성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도 공통적인 것이 많다.



석존의 위대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아직도 육사외도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갠지스강에서 목욕하는 인도인들.

지상설법

조상영(祖上靈)과 자손



법정(화음사 주교)

하늘과 땅의 정기(精氣)는 만물의 형체(形體)로 나타나게 되며, 아버지의 정기는 자식의 혼(魂)이 되고 어머니의 정기는 자식의魄(魄)이 되어, 혼백을 갖추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러나 때가 오면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몸도 죽게 되는 법이다. 일단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천지로 갈라지면서 영혼은 가벼워서 공중에 뜨게 되고 육신은 무거워서 땅에 떨어져 지수화풍(地水火風)의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를 불에 태우면 연기는 공중으로 상승하고 재는 땅에 떨어져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몸중이는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 선행(善行)을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한 사람은 좋은 곳에 태어나서 좋은 생활을 즐길 수 있지만, 나쁜 업(業)만 짓고 살아온 사람들은 무서운 지옥에 떨어져 업보의 고통을 받게 되거나 허공에 헤메이면서 춥고 배고픈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지옥이나 중천(中天)에서 헤메이며 고통 받고 있는 조상영(祖上靈)들은 이승에서 있었던 잘못된 삶을 크게 뉘우치면서 자기들의 자손들에게 한(恨)을 풀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보리살 한 되만 있어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고 개똥 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좋다는 말도 있듯이 이승보다 저승은 업장이 많은 조상님들에게는 말할 수 없이 매우 고통스러운 곳이므로 하루빨리 조상영식을 천도함으로써 전세업을 풀어드리고 고통없는 세계로 보내드리는 것이 자손들의 소원성취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상영의 애절한 소망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손들은

모르고 있으니, 영계(靈界)의 조상님들은 통곡을 하면서 괴로운 영파(靈波)를 자손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다.

조상영은 천도해서 업장을 풀어 구제해 달라고 애절한 영파를 자손들에게 보내고 있지만 자손들이 조상에 대해 무관심하면 조상의 영파가 자손들에게 불어 자손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된다. 즉 가정풍파, 사업실패, 각종질병, 재물손실, 정신이상 증세 등이 일어나며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라고는 없게된다. 뒷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뒷 조상이 편해야

조상영(祖上靈)들은 이승에서 있었던 잘못된 삶을 크게 뉘우치면서 자기 자손들에게 한(恨)을 풀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아랫 자손들이 잘되는 법이다. 인생살이는 연승이 아니다. 한 번 와서 한 번 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수한 생이 반복되고 있으며 사후에는 반드시 영혼의 세계가 있으므로 악업을 짓지 말고 선업을 쌓아서 악도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 흔히들 "죄를 짓고 살아도 잘 살던데..." 하지만 악업은 현재는 부와 쾌락을 얻어 좋을지 몰라도 죽어서 그 영혼은 고통 속에 떨어져 심한 고통과 괴로움에 못이겨 그 비명의 파장이 결국은 자손들의 가정을 불안하게 하고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서원(誓願)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재난이 올 때, 그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 해봐도 안된다는 좌절감부터 먼저 가진다. 그리고 재난을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충청도 어느 절에 가면 공덕이 있다고 하던데...", "어디 가면 용한 무당이 있는데 굿을 해볼까?", "부적이 효과가 있는데..." 하며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우리 총지종법(總指宗法)으로 안되는 것은 무엇을 해도 안된다. 우리법을 모르니까 안되고 법과 같이 안하니 안되는 것이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과 같이 우리 법에 깊이 들어가서 실천해 보지 않고는 안되는 것이다.

토막불교상식

합장이란?



합장(合掌)이란 글자 그대로 손바닥을 합친다는 뜻이다. 불교에서는 제불성존(諸佛聖尊)을 예배할 때 인사를 나눌 때 합장한다. 열손가락과 손바닥을 합치는 것은 흠어진 생각과 거만한 마음을 제어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상대를 믿고 따른다는 존경의 표시이기도 하다. 합장은 고대 인도에서부터 전해 내려온 인사법이라 할 수 있다. 인도에서는 오른손을 신성한 손, 왼손을 부정한 손이라 보는 관습이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을 합치는 것에 의하여 신성한 것과 부정된 것의 합일로 보아 인간의 진실을 추구하는 표현으로 보았다. 천태의 해석에 의하면 합장이란 권실불이(權實不二)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른손은 실신(實身)의 오온으로 보신불을 나타내고, 왼손은 권신(權身)의 오온 즉 응신불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합장에 대하여 가장 심오한 의미를 붙인 것은 역시 밀교인데 밀교에서는 좌우의 손을 금강계와 태장계, 이와 지, 정과 해 등으로 나누어 해석한다. 즉 밀교에서는 오른 손을 불계(佛界), 왼손을 중생계, 다섯 손가락을 오대로 하여 합장은 중생의 오대와 불의 오대가 융합하는 것으로 보아 성불의 모습을 상징한 것으로 여긴다. 합장에는 금강합장, 견실합장, 허심합장, 귀명합장, 여래개운합장, 현로합장, 지수합장등이 외에도 많은 합장의 종류가 있는데 총지종에서는 현교와 달리 (금강합장(金剛合掌))이라하여 양 손가락을 교차하는 합장을 사용하므로서 불(佛)에 대한 경배와 금강같은 신심을 나타낸다.

대한불교진흥원이
불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권하는
불서 결정판!



통일불교성전

불교의 주요 경전을 엄선하여 교계의 권위 있는 필진이 우리말로 편찬한 법회용 최적의 불서. 초심자는 물론 원숙한 불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지니고 읽어야 할 신행생활의 길잡이. 927쪽/10,000원

청소년불교성전

청소년들이 불교의 진리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불교의 대표적인 경전과 문헌들을 엄선하여 우리말로 편찬. 청소년들에게 참다운 인간형성의 길을 제시한 청소년용 법회 교재. 608쪽/5,000원

계간 '불교와 문화'

불교계의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발간되는 종합학술정보지로서 시론, 논단, 기획특집, 강좌/세미나, 교계보도자료연발, 불교관련 방송비평, 한국 불교관계논문 총합색인, 교계 주요 행사 일지 등으로 구성. 8,000원

통일불교성전 설립지침서

통일불교성전에 수록된 각 경전의 해제와 교리개관을 함께 수록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통일불교성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 법회시 불교의 핵심을 보다 명쾌히 설명할 수 있도록 편찬. 465쪽/10,000원

韓國佛敎總覽 98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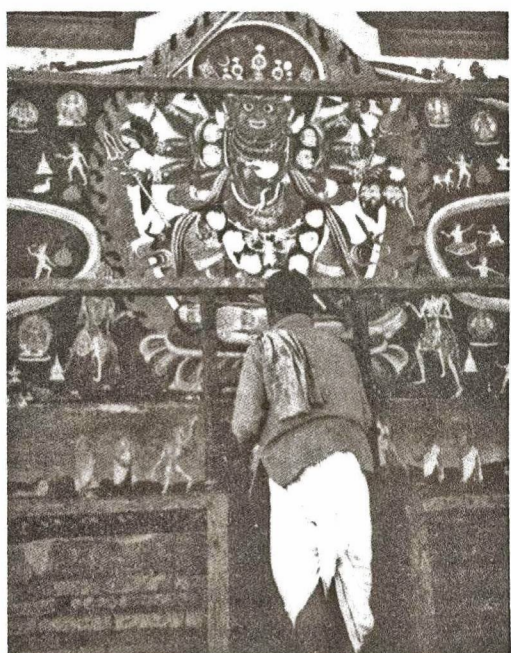
1천 6백년 한국불교의 현황을 총망라하여 정리한 불교계 최초의 종합자료집으로 총론(역사/현황/국제), 자료(종단/법인/단체기관), 목록(인명/사찰/불교문화재/불교도서논문), 법령(불교관계법령), 연표(한국불교사연표) 등으로 구성. 1,000쪽/120,000원



밀교개론 7

대승불교의 전파와 밀교의 유전형식

효강 (법장원장)



초기 밀교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네팔의 불교

대체로 대승불교는 인도의 민중 속에 있는 예로부터 내려오던 민간의 설화, 전승신화들을 계승하고 섭수하여 민중 속 깊이 점차로 뿌리를 내려오고 있었다. 또 한 가지는 대승경전 자체가 설하는 경전 수지의 공덕이 많은 사람들을 불교쪽으로 끌어 당길 수 있는 큰 요인이 되었다. 경전독송 공덕의 단순한 열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금광명경>에 대한 아시아 각처의 뿌리 깊은 신앙은 그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 물론 많은 대승경전 가운데에는 그 경전에 내포되어 있는 특수한 사상을 주제로 삼아 수많은 주석서가 저작되었으며 형이상학적인 문제들이 정치하게 추구되었던 경우도 많이 있었다. 대승경전에서 살고 있는 고원한 사상과 철학적 사변의 많은 것들은 동양사상 가운데에서도 특이한 정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고도의 철학체계를 설파한 경전이라 할지라도 사상에 의하여 경전이 광범위하게 유전되며 민중의 두터운 신봉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 대승불교의 전형적인 사상을 훌륭하게 설파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 그 경전을 아세아 각처에 유포하고 정착시킨 원인은 그 고원한 철학적 이념보다는 경전의 수지독송에 대한 민중의 소박한 주술적인 신앙의 비중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유명한 <대반야경> 600권을 비롯하여 수많은 대승경전을 번역하였으며 대승교화 최고 권위자의 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장 삼장같은 분도 구법 여정중 도적을 만나 자신의 생명이 위태했을 때 일심으로 반야심경을 독송하였다고 전해 내려 오고 있다.

밀교의 유전형식도 대승불교의 전파형태와 같이

인도에 있어 초기밀교경전에 대한 민중의 관심도 특별히 사상적인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 경전 자체 또는 그 경전에 설한 '다라니'를 수지하여 독송함으로써 오는 이익과 공덕에 대한 신앙이 주가 되었다. 밀교의 의례가 발달하여 점차로 정비되며 의례가 복잡화 되어 밀교의 실천법이 세밀히 규정되게 되므로서 경전독송의 신앙보다는 수법의 실행에 의하여 초래하게 될 각종 이익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게 되었던 것이다. 밀교의 성전 등도 그 속에 설파되고 있는 특성의 사상적인 과제에 대한 논의가 중첩되어 유전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을 취한 예는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는 밀교경전이 성립되어 거기에 대한 주석서가 저작되어 일반에 유포되어 나가는 형식은 적어도 여태까지 인도에서 발견된 형적에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특성의 영능자의 종교체험이 중심이 되어 어떤 종류의 수법체계가 구성되어서 그 수법체계에 입각하여 행자집단이 형성되어 유전되어 나갔다는 것이다. 그 이후 그러한 행자집단 가운데서도 중핵이 될 만한 실천적 사상적인 과제가 거론되어 거기에 입각한 경전이 만들어 졌다는 것이다. 중기 또는 후기의 밀교경전에는 몇 개의 실천방식이 다른 유파가 소속된다든지 또는 수많은 의례가 부속되어 있다. 이것이 밀교의 특이한 유전형식에 기인한 바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계속>

福은 산스크리트 punya의 번역으로서 복덕이라고도 번역한다. 세간적인 행복을 가져오는 행위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경전에서는 세간이나 출세간에 통달이 널리 말할 때가 많다. <이함경>에는, 착한 행위를 출세간적인 무위의 청정행과 세간적 유부의 복덕으로 나누어, 복덕이라 함은 보시 등의 행위라고 했으며, 생전의 원인이 되는 재가의 행으로 삼았다. 대승불교에서는 육도(바라밀)의 행을 福業으로 나누어 지혜를 체로 하는 행위 밖의 모든 것을 복업이라고 하면서 성불의 인으로 하여 복을 출세간에 통하는 것으로 했다.

이상은 <불교사전>에 보이는 복에 관한 해설을 정리해 본 것이다. 찬찬히 훑어보면 우리가 대승 생각하던 것과는 많은 다른 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들은 육도에 기반을 두고서 사주팔자의 행복, 곧 財나 財나 財나 壽를 기준으로 특히 그러한 것을 받는 쪽으로만 생각해 왔다. 그러나 경전에 보이는 복에 대한 견해는 좋은 업을 짓는 방향이지, 절에 돈 몇 푼 갖다 바치고 기도나 불공 조금 하고서 받으려고 기다리는 그러한 방향이 아닌 것이다. 사실 내용적으로도 우리들의 생각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의 내용은 재물이나 벼슬이나 수명이 그 무게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사적 실존 인물인 석존의 삶을 통해서 명백히 알 수 있다. 그 분은 재물상으로는 부동산 한 필지나 동



산 하나 제대로 가진 것이 없었다. 벼슬로서는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수명도 그분 보다 오래 산 사람은 많이 있었다. 그러한 분께 우리는 재물을 빌고 벼슬을 빌고 수명을 빌고 있으니, 길을 비유로 해서 말하자면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성직자들의 삶도 크게 다를게 없으니 부처님께서서는 성욕을 버리고 재물욕도 버리고 명예욕도 버리셨는데, 오늘날 부처님께서 버리신 그러한 것들을 도로 추구하고 있는 성직자들이 적지 않으니 이 또한 길을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우리는 불교를 좋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코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어찌 제대로 행할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으니 바르게 알기는 참으로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덕부터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부처님이 말씀하시던 것과는 너무나 크게 차이가 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재물이나 벼슬을 가지시지는 않았지만 그 분을 복덕이 없는 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 복은 보시 등의 바라밀을 알 때 그것은 결국 나 자신과 나 자신, 나아가 나 자신과 대상 사이의 갈등 구조를 허물어 능(能)과 소(所)로 다룬던 내외의 것들 사이의 답이 무너져 따뜻한 교류가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내 스스로 나와 모든 것이 따뜻한 마음의 교류가 일어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은 피어나는 것이다. 이 행복에는 한계가 없으며 변할 리도 없다. 이것이 부처로 가는 길이므로 성불의 인이 되는 것이며, 여기에서 복은 세간과 출세간이 따로 없게 되는 것이다. 무위복은 마음이 열려 청정해지면 우리들의 삶이 확장되어 무궁무진한 모습의 열린 세계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복은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부처님이 가장 많은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복은 마음의 문을 열고서 남과 박을 받아들이고,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것을 이르는 말임을 알 수 있다. 복은 부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어야 하는 것이다. 그 길이 바로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다. 복은 나의 욕망과는 반대 방향에 있다. 정리 : 김진태

육바라밀의 실천과 생활화 2



법공 (만보사 주교)

아시다시피 육바라밀의 순서를 보면 먼저 보시바라밀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지계(정계)·인욕(안인)·정진·선정(정려)·지혜(반야)바라밀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 여섯 바라밀 중 왜 하필이면 보시바라밀을 첫머리에 두고 다음 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순으로 설했을까요? 그 이유를 경전에서 찾아 보기로 합니다.

우리 총지중의 소의 경전인 대승리취 육바라밀다경 권제에 <보시바라밀을 먼저 설하는 이유>란 대목에 보면 "무슨 까닭으로 보시바라밀을 먼저 설합니까?" 하는 자제보살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보시는 육도(六度:육바라밀)중에서 가장 수습(修習)하기가 쉬운 까닭에 먼저 설하는 것이다. 비유하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과 같이 만약 하기 쉬운 것은 마땅히 이것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육도의 저 언덕은 보시를 문으로 하고 사십(四攝:布施·愛語·利行·同事)의 행을 머리로 삼는 것이니 마치 대지에 일체의 만물이 의지하여 생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뜻으로 먼저 보시바라밀다

국왕이나 거부, 장자라도 능히 보시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보면 물론 큰 부자가 큰 보시를 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큰 부자가 아닌 광범한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이름없는 서민들이 큰 보시와 지극하고 진실된 보시를 하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헤아려 보면 우리 인간은 본래 받기를 좋아하고 주기를 싫어하는 이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삼계중 욕계에 속하므로 다생겁을 통해 오로지 욕심에 끌려 탐업을 쌓은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고보면 주는 것은 장차 받을 근본이 되는 것이며 받는 것은 장차 도로 주어야 할 원인이 되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보시바라밀의 참뜻을 깨달아 끊임없이 보시심을 기르며 부지런히 보시행을 수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생의 업장 때문에 여간 부지런히 수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것을 이뤄낼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묵은 업을 떨쳐내기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금생에서 잠시 익힌 습관도(술·담배·잡버릇·말버릇 등) 한 번 익히기는 쉬워도 고치기는 어려운 법인데 하물며 무시관견(無持功)으로 쌓고 쌓은 탐욕

육바라밀 가운데 <보시바라밀>을 먼저 설하는 이유에 대하여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바라밀이 즉 보시바라밀

를 설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매사에 반드시 선후와 본말이 있는 법이나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의 차서(次序)를 아 행해야 진리의 이법(理法)에 부합되는 것입니다. 보살이 성불의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필수적인 단계라 할 수 있는 육바라밀인데 어느 한 바라밀인들 쉬운 것이 있을까만은 그래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행할 수 있는 바라밀이 즉 보시바라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바색계경(優婆塞戒經)>에도 보면 "재물이 없는 사람이 나는 재물이 없어서 보시를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진실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 모금의 물과 한 포기 풀도 없다고 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극히 가난한 사람이 한 끼의 밥을 먹은 뒤에 그 밥그릇을 씻은 물을 보시하여도 복을 얻을 것이며 가령 진 보리가루 찌꺼기를 개미에게 보시하여도 또한 무량한 복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布施)란 재물의 다소(多少)와 유무(有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시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시할 뜻이 없으면 비록

심야야말로 어찌 비교가 되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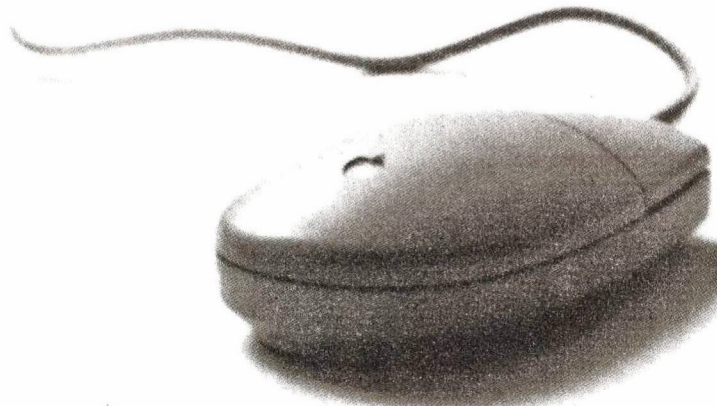
오죽 크면 부처님께서 인간의 탐욕이란 묘고산(妙高山)보다 높고 크다 했겠습니까?

그런고로 우리 총지중에서는 고도가 발심입교하면 맨먼저 매일 정승(定誦)과 더불어 절량희사법(節量喜捨法)과 정시(定施), 차시(差施)법을 꼭 실천토록 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살도란 복과 지혜를 쌍수(雙修)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저간의 우리 불교계의 수행인들의 상당수가 복 따로 지혜 따로 어느 한 쪽에 치우친 수행이 많았습니다. 복지란 수레의 두 바퀴와 같고 또한 새의 두 날개와 같아서 어느 것 한 쪽이라도 없거나 크기가 같지 못하면 온전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각기 근기대로 닦되 복지쌍수(福智雙修)로 한 쪽에 치우침이 없이 균형(均衡)되게 닦아야 함은 자명한 이치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총지중의 수행 방편인 <실천보시행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계속>



알음알음 알 수 있습니다.

여 래 기 획

광고기획/카다록/사보편집/출판대행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영빌딩 401호
전화 739-2180, 722-2850
팩스 730-9067

교화영협담

법상인(자석사 주교)



진언염송을 통한 영식의 천도

몇 해 전, 자그마한 체구에 창백한 얼굴의 중년부인이 찾아왔다. 백혈병이 있어 병원에서 1차 수술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 2차 수술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수술이 비용도 많이 들고 완전하진 않다는 보장이 없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절에 왔다고 했다. 목에서 가슴까지 호스를 넣은 상태로 진언염송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혈색도 좋아졌고 보기에 정상인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되었다. 49일 불공을 하는 동안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이 되자 그 보살은 더욱 용맹정진했다.

그리고는 사흘 뒤에 세상을 떠났다. "엄마, 저는 누가 천도시켜 주나요? 남편에게 재불공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하면서 우는 소리가 들렸다. 보살의 친정 어머니의 몸에 강신이 되어서 한 말이었다. 불공을 마친 뒤 사위에게 이야기하자 49재를 하겠다고 했다. 출상하는 날 또 친정 어머니의 몸에 또 강신되어 애들을 잘 부탁한다고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나는 그 보살을 위해 49일 천도 불공을 했다. 불공을 다한 뒤에 영식이 갔는지 확인하려고 그 보살의 친정 어머니와 한 자리에 앉았다. 보살의 영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왜 안갔느냐고 물었더니 마음대로 잘 안된다고 했다. 그래서 그 보살의 유언영식을 불렀다. 보살의 이모 영식이 말문을 열어주면 간다는 뜻을 보였다. 어린 아이에게 말 가르치듯이 가르쳤더니 고맙다고 하면서 떠나갔다. 다시 그 보살의 영식에 설법을 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 법. 단지 조금 일찍 갈 뿐이다. 자식과 남편에 대한 애착을 끊고 좋은데로 가시오." 하고 타일렀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말 못하는 이모와 보살은 전생에 모녀 사이였는데 서로가 너무 애를 많이 먹고 악담과 모진 말로 서로 싸운 수원(壽源)과보로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보살의 남편은 전생에 오누이였는데 동생을 때리고 악담한 수원과 보가 있어 이생에 와서 부부가 되었다고 했다. 그 과보를 받느라고 몸이 아파서 고통을 준 것이라는 말을 했다. 지금의 친정 어머니와 이모는 전생에 형제 사이로 역시 악담과 모진말을 한 인과로 고통을 준 것이라고 하면서 떠나갔다.

우리는 종교를 믿으면 좋은 것만 온다는 생각에 빠져 있다. 아니, 어쩌면 나쁜 것을 외면하려고 종교를 가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 보살의 경우와 같이 근본을 찾고자 불공을 했지만 목숨은 어쩔 수 없었다. 마치 기름이 다 된 호롱불 같이...

우리가 불공을 하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작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인과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 고통의 근원을 뿌리뽑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행복이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이 아무리 신비하게 보일지라도 우리를 깨우쳐주기 위한 법문에 불과한 것으로 거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해탈로 나아가는 가장 빠른 길이 우리의 삼밀수행이고 진언염송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가 불공을 하는 목적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작은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인과의 도리를 바르게 알아 고통의 근원을 뿌리뽑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해탈이고 행복이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임신한 것처럼 배가 불러오고 뭐가 지푸라기 먹고 싶다고 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 보살을 위해서 칠일 불공을 했더니 그 보살에게서 천도되지 못한 영식(靈識)이 나타났다. 그 보살의 시아버지가 아들을 얻기 위해 어떤 여자와 살림을 차렸는데 딸을 낳자 그 집을 나온 일이 있었다고 한다. 그때 아이를 낳고 죽은 여자가 할 말이 있어 임신한 몸처럼 했다고 보살의 입을 통하여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병어리로 어릴 때 죽은 보살의 이모 영식, 천도가 되지 않은 시댁과 친정의 윗대 조상들의 영식도 나타나 간절하게 천도를 원하면서 불공을 해달라고 했다. 나와 보살의 지극한 진언염송으로 유언(有緣)영식은 모두 천도되었지만 보살의 몸은 더욱 나빠져갔다. 어느 날, 그 보살의 친정 어머니와 함께 절에 왔는데 사색이 완전했다. 그 날 보살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고 싶어 서원을 했더니, 전생에 모진 말로써 악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법문을 주시더군요."

스승님을 그리워하며

어머니 같았던 심인행 전수님

실지사 원각화(최 채숙)

포근한 어머니의 품속처럼 항상 우리를 감싸고 지도해주시던 심인행 스승님께서 실지사 주교의 임기를 마치고 기로원으로 떠나신지도 벌써 일 년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스승님을 처음 뵈던 것이 었고 제 같은데 벌써 이십년이 지났군요. 스승님께서 처음 법의를 입으시고 실지사의 주교로 발령 받았던 것이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저도 병아리고도였지요. 그 당시는 실지사가 종암동에 있었는데 심인행 스승님께서도 원정 종조님이며 환당님 등 높은 분들도 모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교회하러 왔던 분들 모시라 바쁘셨을 테지만 그 바쁘신 가운데도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때마다 해드려 잡수시게 하고 시간까지도 맞춰 드시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자식이 그렇게 친부 모시듯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겨울이면 손수 솜을 넣은 한복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른을 받드시는 것을 저희는 잘 보고 배웠지요. 우리도 저렇게 부모님께 잘 해 드렸으면 했지만 이미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스승님께서 한 시도 손을 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 형직 조각으로도 보살



어느 여름날의 심인행 전수님

님들이 요긴하게 쓸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주셨지요. 또 스승님들의 법의도 손수 재단하시어 만드신 것이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는 저도 병아리고도였지요. 그 당시는 실지사가 종암동에 있었는데 심인행 스승님께서도 원정 종조님이며 환당님 등 높은 분들도 모시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힘이 드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 한동안은 교회하러 왔던 분들 모시라 바쁘셨을 테지만 그 바쁘신 가운데도 어른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을 때마다 해드려 잡수시게 하고 시간까지도 맞춰 드시게 하시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느 자식이 그렇게 친부 모시듯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뿐이 아니라 겨울이면 손수 솜을 넣은 한복을 지어 입히시면서 어른을 받드시는 것을 저희는 잘 보고 배웠지요. 우리도 저렇게 부모님께 잘 해 드렸으면 했지만 이미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안계셔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스승님께서 한 시도 손을 쉬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조그마한 자투리 형직 조각으로도 보살

쓰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저희들은 스승님의 겸소함을 배웠습니다. 거기다가 붓글씨는 또 얼마나 잘 쓰시는지 저희들의 손목을 잡고 손수 가르쳐 주시던 그 모습을 저희들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스승님이 기로원으로 떠나시고 저희들은 얼마나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저희들의 마음을 일으켰는지 지난 여름에는 주머니를 털어 실지사에 에어컨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아무 탈 없이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위해 살 수 있었던 것도 다 스승님께서 보여주시는 평소의 그러한 모습을 본받고 실천하고자 노력한 덕분이었지요. 어머니처럼, 언니처럼 언제나 우리를 께안아 주시던 스승님. 스승님이야말로 저희 곁에 머물다 가신 관세음보살이 아니었는지요? 스승님! 만수무강하세요. 그래서 멀리서나마 저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스승님의 건강을 위해 저희들은 항상 부처님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스승님께서 길을 잘 열어 놓고 가신 덕분 이번에도 새로 오신 선도원 스승님도 너무 인자하시고 좋으십니다. 저희 실지사 교도들은 그 어느 사원 보다도 복받은 교도들이라 생각하고 더욱 용맹정진하겠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비둘기 대신 자기 몸을 주다

대지도론 권제사(大智度論 卷第四)

옛날, 자비심이 많은 임금님이 살았다. 그 나라 백성들은 부모같은 임금님을 너무나 존경하고 있었다. 자비심을 많이 베푸는 임금은 언젠가는 부처님처럼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햇살 고운 어느 날, 임금님 궁궐 뜰 안을 거닐고 있을 때였다. "살려주세요."

어디서 왔는지 하얀 비둘기 한 마리가 임금의 품속으로 날아 들어 왔다. 깜짝 놀란 임금님이 그 새를 내놓으려고 하자 새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 담장 밖을 보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무가지 위에 커다란 매 한 마리가 눈을 무섭게 빛내며 앉아 있었다.

"그 비둘기를 내놓으십시오. 임금님의 품에 숨어 들어간 그 녀석은 저의 저녁거리입니다."

임금은 매의 눈빛이 무서웠지만 못 본 체 하며 이렇게 말했다.

"네게 이 가벼운 새를 줄 수가 없구나. 내가 부처가 되려고 서원을 세울 때, 모든 중생을 다 구호하겠다고 결심했거든."

그러자 매는 화가 난 듯이 임금에게 따져 물었다.

"임금님, 모든 중생 속에 나는 들어가지 않습니까? 배고픈 저한테는 자비를 베풀지 않고, 저

비둘기에게만 자비를 베푸시는군요. 저는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니 먹이를 돌려주세요."

임금은 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지만 무서움에 떨고 있는 새를 차마 내주기가 어려웠다.

"이것을 네 먹이로 줄 수는 없고... 그런데 너는 어떤 것을 먹고 싶니?"

"임금님, 저는 갓 죽인 날고기가 먹고 싶습니다."

매의 말을 들은 임금은 속으로 생각했다.

'날고기라면 산 목숨을 죽이지 않고는 얻을 수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다른 목숨을 죽게 할 수는 없고... 옳지, 내 몸은 오래지 않아 죽고 말 것이니 차라리 내 몸을 주자.'

임금은 선향 자기의 다릿살을 베어 매에게 주었다. 그러나 매는 임금이 준 다릿살은 거들떠도 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임금님, 그것으로 제 주인 배를 채울 수 없습니다. 주시려면 저 비둘기 무게 만큼 주십시오."

임금은 기가 막혔지만 매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신하에게 저울을 가져 오라고 시켰다.

저울 위에다 자기의 다릿살과 비둘기를 양쪽

에 올려 놓으니 과연 비둘기 쪽이 기울어졌다.

임금은 자기의 다른 한 쪽 다릿살을 더 베어 저울에 올려 놓았지만 비둘기 무게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그래서 두 발꿈치, 두 엉덩이, 두 가슴살을 베어 달았지만 비둘기 무게보다 가볍기만 했다. 마침내 임금은 자기의 온 몸을 저울 위에 올려 놓으려고 몸을 움직였지만 많은 피를 흘리고 기운이 빠져 그만 그 자리에 쓰러졌다. 그러나 쓰러져 고통에 일그러져 있어야 할 임금의 얼굴은 온화하게 웃고 있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이 한 일을 후회하는 표정이 아니었다. 오히려 중생들의 고통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모든 중생은 다 고해(苦海)에 빠져 있다. 나는 그들을 건져 내야 한다. 이 고통도 중생들이 받는 자유의 고통에 견주면 그 십육분의 일에도 미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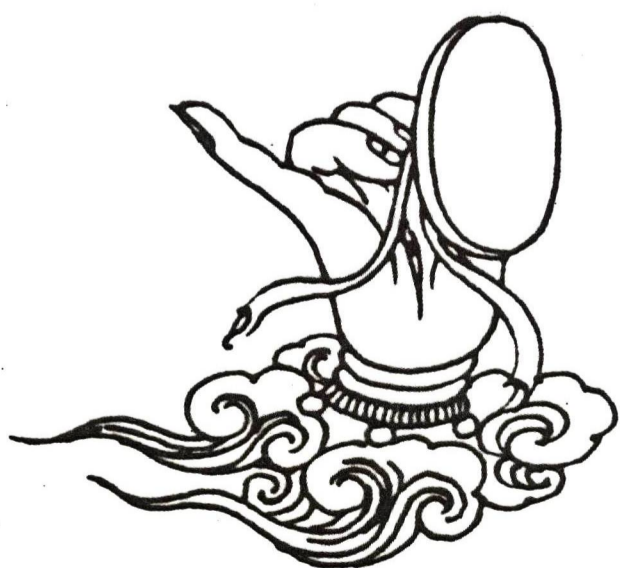
임금은 다시 몸을 일으켜 저울 위로 올라 가려고 하다가 다시 쓰러졌다. 그 때 임금은 다시 맹세하여 말했다.

"내 살을 베고 피를 흘려도 괴로워 하지 않고 한 마음으로 불도를 구하였다. 이 말이 진실이라면 내 몸은 본래대로 회복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자 임금의 몸은 거짓말 같이 회복되었다.

정통밀교 불교총지중

삼밀사 헌공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 경인교구장
원 송 합장

정통밀교 불교총지중

삼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중 부산·경남교구장
의 강 합장

총지도랑 순례

정법수호의 금강도랑 開天寺

하늘이 열리듯 진리를 밝혀



수성 대정사

개천사(開天寺)! 총지종의 태동(胎動)과 더불어 즉신성불의 대도(大道) 밀교의 문을 열고 영남의 중심도랑으로 우뚝 선 개천사는 대구시 중구 봉산동 230-12번지에 자리하고 있다. 대구 향교를 돌아 개천사를 찾아 들어가니 법회에 참석하는 교도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오전 10시가 되자 서원당이 뽐뽐이 들어차며 주교인 수성 대정사의 집으로 진언염송의 엄숙하고 우렁찬 소리가 울려 나왔다. 수성 대정사와 삼정행 전수는 여법하기로 소문이 나신 분이다. 총지종의 초창기로 부터 죽비를 잡은 이래 한 치도 어긋남이 없이 원정 종조(宗祖)의 가르침을 이어 받아 실천하면서 교화에 전념해 왔으며 종단의 원로로서 정법 수호에 앞장서 왔다.

개천사가 세워진 것은 총기 2년. 처음에는 <대구선교부>라는 이름으로 남산동에 자리를 잡았으나 그 후 교세확장과 더불어 지금의 봉산동으로 옮겨오게 되었다. 개천사의 역사는 총지종의 역사와 함께 하며 또한 그것은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켜온 수성(修成) 대정사와 삼정행(三淨行) 지수의 역사이기도 하다. 특히 삼정행 지수는 오늘의 개천사를 있게 한 주인공이다.

삼정행 스승님은 28세 때에 진언 밀교에 입문한 이래 가족을 제도하여 부군인 수성 대정사도 같이 밀교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한다. 총지종의 태동기인 1971년 수성 대정사께서 서울에 들러 원정 종조로부터 준제법을 받아 오셨는데 정작 이 법을 가지고 공덕을 크게 본 것은 삼정행 스승님이셨다고 한다. 그때 까지만 해도 불공방범이 금강지권에 움마니반메흠

을 염송하는 것이었는데 원정 종조께서 대일여래의 결인과 관세음보살의 진언을 함께 하는 것은 삼밀의계에 어긋난 것임을 뒤늦게 아시고 여법하게 삼밀 수행을 하기 위하여 준제법을 시행하셨던 것이다. 수성 스승님이 받아 오신 준제법을 본 삼정행 스승께서는 이 법을 가지고 칠일동안 그야말로 여법하게 정진을 했는데 말할 수 없는 공덕이 일어나더라는 것이다. 삼정행 스승께서 수성님이 경주에서 사오신 염주를 처음으로 손에 들고 준제법으로 불공을 한 결과 그때까지의 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는 것이다. 원래 유별나게 몸이 약했던 삼정행 스승님은 이 불공으로 공덕을 보고는 다른 보살들에게도 이 법을 권했는데 다같이 신묘한 공덕을 보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준제법을 행하는 보살들이 자꾸 불어나자 나중에는 아예 집애다 본존을 봉안하고 같이 불공을 했는데 감잡을 수 없이 사람들이 늘어나는 바람에 집이 비좁아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때는 총지종의 초창기로 정식 스승도 없이 준제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모여 스스로 교도가 되고 스승이 되어 함께 불공하고 있었다고 한다. 물론 이 가운데서 이들을 이끌었던 것은 삼정행 보살이었다. 반듯한 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식 스승이 부임하여 지도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네 집을 재공하여 법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이끌다 보니 가정생활도 엉망이 되고 수용할 공간도 도저히 용납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는 지금 생각해보도 신기할 정도로 사명감에 불타 그러한 어려움을 감수하며 법을 전하고 사람들의 병구완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곤란했던 것은 물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원정 종조님께 말씀드리자 원정님께서 서원당을 마련하라고 약간의 돈을 내려 보내 주셨는데 그 돈으로는 서원당을 마련하기에는 턱없



이 모자라 사비를 보태어 남산동에 우선 자리를 마련했다. 대형 탁구장이 한 동 있었는데 그것을 개조하여 서원당으로 삼은 것이 바로 <대구선교부>의 출발이었던 것이다. 이때 쯤에는 시내에 소문이 자자하여 택시운전 기사들도 남산동 병구완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곤란했던 것은 물려드는 사람들을 수용할 공간이 모자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을 원정 종조님께 말씀드리자 원정님께서 서원당을 마련하라고 약간의 돈을 내려 보내 주셨는데 그 돈으로는 서원당을 마련하기에는 턱없

는 물려드는 사람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주교를 파견해 달라고 통원원에 요청을 했더니 책임자가 없어 미루기만 하다가 결국은 지금은 열반하신 환당 대종사께서 주교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러나 환당님은 역경을 비롯한 종단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 주력하시던 때라 서울에서 내왕하셨기 때문에 교화에 전념하실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 사이에 종단에서는 삼정행 보살에게 승직에 올라 주교를 맡을 것을 누차 권유했지만 가정 주부로서 선뜻 중책을 맡는다는 것이 결심이 서지 않아 극구 사양했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날 원정님께서 갑자기 삼정행 전수 내외를 서울로 부르시더니 계를 받으라고 엄명을 내리시면서 삼정행 전수를 주교로, 공직에 몸 담고 있으면서 초창기 부터 종단의 감사직으로 있던 수성님을 명예정사로 임명하신 뒤 교도들에게도 그렇게 공표하셨다. 이렇게 되어 떠밀리다시피하여 교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았지만 이것도 다 부처님과의 인연이고 중생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 생각하고 교화에 전념한 지 근 삼십년을 바라 보게 된 것이다. 그 이후 <대구선교부>는 계속 발전하여 <개천사>라 이름짓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그 사이 개천사로 인하여 효목동의 <제석사>와 영천의 <단음사>가 세워지게 된 것도 다 이 두분의 공덕이라 해야 할 것이다.

삼정행 지수께서 교화에 전념하시는 동안 수성 대정사는 사감원장, 대구·경북 교구장, 종의회 의장, 종립 동해중학교의 이사장 등 종단의 요직을 맡아 종정에 참여하며 총지종의 발전에 이바지해 왔다. 신정회 회장인 불도정(추두남) 보살에 따르면 개천사의 초창기 부터 스승님 내외분을 보아 왔지만 항상 흐트러짐 없이 정법으로 지도해 주시

고 있다고 했다. 총무인 심수행(조향숙) 보살은 삼정행 스승에 대해서 원리원칙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고 사사로운 정에 끌림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며 걸으려는 엄해 보이지만 실은 자비심이 너무 깊어 관세음보살의 화현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개천사는 이러한 두분의 지도로 그 어느 곳보다 신심 깊은 교도들이 많으며 단합이 잘된다고 했다. 기자가 방문한 그날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환담을 나누고 찬불가 연습을 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였다. 방생법회나 창교절 행사등에서도 개천사는 항상 적극적이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창교절 행사에서는 교도들이 자발적으로 축제가 세워지게 된 것도 다 이 두분의 공덕이라 해야 할 것이다.

고 수행자의 품모를 잃으신 적이 없었다고 한다. 특히 수성 정사님은 항상 온화한 태도로 교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 때문에 말씀만 들어도 모든 근심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



삼정행 지수

지 않았느냐고 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교화 방편이 달라져야 한다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가 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도 불구하고 개천사가 우리 총지종의 정법도랑으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한결같이 원정법을 그대로 이어 받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성 정사님이나 삼정행 전수께서는 모든 것이 여법하게만 시행된다면 교화에 대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신다. 불교, 특히 밀교의 수행은 어디까지나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고행의 길로 나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수행을 하면서, 그리고 교화를 하면서 편한 것을 바라는는 안된다고 하신다. 그리고 일부 사원에서 교화의 방편으로 몇가지의 변화를 추구하는데 대하여 삼정행 스승님은 일축하여 이렇게 말씀하신다. "삐뚤 법이 들어오면 밀교는 미신


의 앞잡이가 된다. 스승은 스승답게 교도는 교도답게 항상 정도를 걸으며 노력 정진하면 공덕은 저절로 일어난다. 정도는 곧 원정님이 주신 밀법이다. 교화가 잘 되지 않고 공덕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면 환경과 여건을 탓하기 전에 그것은 모두 본인의 책임이다. 무슨 일이건 정성을 다 기울인 뒤에 결하여 결과를 기다려라. 법신 불은 절대 그러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정법을 수호하는 스승다운 말씀이다. 두분 스승님의 한결 같은 원력으로 일어난 개천사가 길이길이 번창하여 이 땅에 밀엄국토가 하루 빨리 앞당겨지기를! 움마니반메흠!

정리 : 화형



청통밀교 불교총지중


삼밀사 헌공을 봉축합니다



불교총지중 대구·경북교구장
수 성 합장

청통밀교 불교총지중

삼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불교총지중 충청·전라교구장
법 수 원 합장

만다라의 세계

금강계 종자 만다라



밀교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식과 수행이 실천되며 그러한 실천을 통하여 깨달음에 이르고 바라는 바를 성취하려고 한다. 그러한 실천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이른바 <법구(法具)>인데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도구>와는 달리 신성한 힘을 가진 것으로 상징하여 사된 것을 쳐부수고 불의 가호를 얻는 수단으로 받들어진다. 그러한 법구중의 하나가 바로 만다라인데 그림에서 보는 이 만다라는 금강계의 종자(種子)만다라로서 밀교의 특징인 상징성의 극치를 나타내고 있다. 하나하나의 불보살을 상징하는 문자, 즉 종자에 의하여 불의 깨달음의 세계, 즉 신성불의 원리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단신

법장원 연구원 신규 채용



불교학으로 유명한 일본의 용국대학교 불교학과에서 학부과정을 마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박재걸(법명 보경)씨가 법장원 촉탁연구원으로 선임되었다. 법상유식을 전공한 박재걸 씨는 종교학과와 시찰부터 불교에 입문하여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장년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불교 활동에 전념해 왔으며 대중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한다.

총지사, 노인회와 자매결연

총지사와 서울 역삼동의 노인회가 3월 31일 자매 결연을 맺었다. 강남구청과 역삼동사무소에서는 종교단체와 노인회의 유대를 위하여 결연을 추진했는데 총지사는 성보경로당(회장 김용득)과 결연을 맺고 결연증서를 교환했다. 결연을 맺게 되므로 총지사는 노인회를 지원하고 불법을 전하여 회원들이 여생을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한다.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 대법회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주최하고 조계종, 총지종, 진각종, 천태종, 관음종, 법륜종 등 각 종단이 공동주관하는 국난극복을 위한 참회대법회가 금년 말까지 개최된다. 국민회의 연동회, 자민련 불자회, 한나라당 불자회와 불교방송, 불교TV, 현대불교신문사 등이 후원하는 이 법회는 경제난 극복과 국민화합을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4월 5일 조계종 신홍사를 필두로 각 종단이 전국 도별로 순회하며 개최하게 된다. 총지종 주관의 법회는 9월 23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된다. <진도국가 기원 철야 정진 법회>로 이름한 이 법회에서는 총지종만의 독특한 수법(修法)이 행해지는데 수호국계주경에 의거한 진인 '음흉야호사'와 비로자나 결인으로 오불, 사보살, 사명왕, 사천왕을 관하며 부국강병과 국민민안을 기원하는 철야정진에 들어간다.

구독신청 및 원고접수
전화 : 508-8933
(담당 김혜경)

이런 불자

배호성 거사

오뚝이처럼 다시 일어서는 불자

진언의 공덕으로 재기를 다지며



요즘 우리 종단의 본산인 총지사에는 한 눈에도 친근감을 단박 느낄 수 있는 종년 신사를 거의 매일 만날 수 있다. 어느새 종단의 주요 인사와 허물 없이 대화를 나눌 정도로 낮이 익은 이 분이 불교 총지종과 인연을 맺게 된 사연은 참으로 기구하다.

배호성거사. 대구 출신으로 42년 생이니 어느새 세상의 소리를 터득한다는 이순을 바라보고 있는 이분은 유명한 제지회사였던 무림제지(현재 감을방직의 전신) 창업자의 장남으로 태어나 경복고를 거쳐 중앙대학교를 졸업한 이후 지금껏 기업인으로 살아 왔다. 우리나라 섬유공업의 본산지라 할 수 있는 대구의 유명 방직회사에서 오래 근무하면서 실무경력과 기업 윤리를 몸에 익혔다.

이분의 아버님께 큰 도움을 받아 한국 제지업계의 유명 인사가 된 분과의 인연으로 지난 87년 삼우화학을 설립하였는데, 이 회사는 일용용 생리대와 기저귀에 들어가는 방수용필름을 생산하여 연간 3천만불 이상의 수출 및 수입대체 효과를 올려 경제기획원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모범적인 중소기업으로 상을 받는 등 대단히 유망한 회사였다. 국민소득이 한창 늘어나던 80년대 중후반 이후 생리대와 기저귀의 시장이 확장되면서 이 회사의 매출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 95년에는 수출 8백만불을 포함 187억원의 매출과 110명에 이르는 종업원의 규모로 성장하였다. 또 91년부터는 삼우화학 공장이 있는 문경지역의 유희노동력을 고용하기 위해 신규업종인 레저용테이블을 생산하여 연간 5백만불 상당의 외화를 벌어들였다.

이렇게 성장을 거듭하던 회사에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91년 들어면서 부터였다. 삼우화학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생리대와 기저귀를 생산 판매하던 대기업이 부당한 거래로 삼우화학을 곤란에 빠지게 하였다. 공급물량의 일부를 빼돌려 삼우화학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타업체에게 주면서 회사의 가동유니는 떨어져 갔다. 배호성거사는 이때 방수용필름의 획기적인 기술개발로 경쟁력을 높이는 것만이 활로라는 판단에 기술개발비 20억원과 설비비 60억원 등 엄청난 액수를 투자하였다. 그리하여 93년부터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만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통기성방수필름을 자체 개발하여 막대한 외화 유출을 막았고 오히려 제품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상당액의 수출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대기업의 교묘한 횡포가 계속되어 회사의 적자는 해가 갈수록 누적되었고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96년 1월과 2월 제작 수출한 레저용테이블의 상당수가 불량 반품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국내 굴지의 화학원료회사가 납품한 원자

재의 불량인 원인이었다. 삼우화학과의 거래를 하던 대기업은 공급업체도 외국회사와 합작한 회사들이었다. 하나는 김벌리였고 하나는 바스프라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써 국내의 0양행과 화학학과 각자 합자 형태로 설립한 기업이다. 이 대기업의 부도덕한 횡포로 회사는 결국 96년 10월 부도로 쓰러졌다. 물론 원인 제공을 한 두 대기업은 자신들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자신의 본산과도 같은 회사가 쓰러진 후에도 배호성거사는 좌절하지 않았다.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살리고자 두 대기업의 문이 닫도록 드나들며 대기업의 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그들은 배거사의 인간적인 노력을 여지없이 거부하였다. 재기의 실낱같은 희망이 수포로 돌아가자 배거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였다. 이생의 인연을 스스로 종지부 찍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전남 장성의 백양사 법당에서 삼천 배를 올렸다. 그의 기도를 부처님께서 감응하였던 것일까. 밤새 흠뻑 젖은 몸으로 법당을 나와 새벽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재기의 의지가 불같이 타올랐다. 그대 '땅에서 쓰러진 자 땅을 짚고 일어나라'고 이르신 지눌스님의 말씀대로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각오가 불끈 솟았다.

우리 종단이 전담하고 있는 한국불교종단협 소비자보호위에 자신이 겪은 중소기업의 실정을 호소하면서 배거사는 한국불교의 밀교 전통을 새롭게 계승 발전하고 있는 총지종과의 인연이 열렸다. 그는 틈나는대로 '올마니반메훈'을 염송하고 차분히 재기의 의지를 다지고 있다. 그의 앞날에 부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란다.

김혜경 기자



총지사에서 정진중인 배호성 거사

수계사 신정회원 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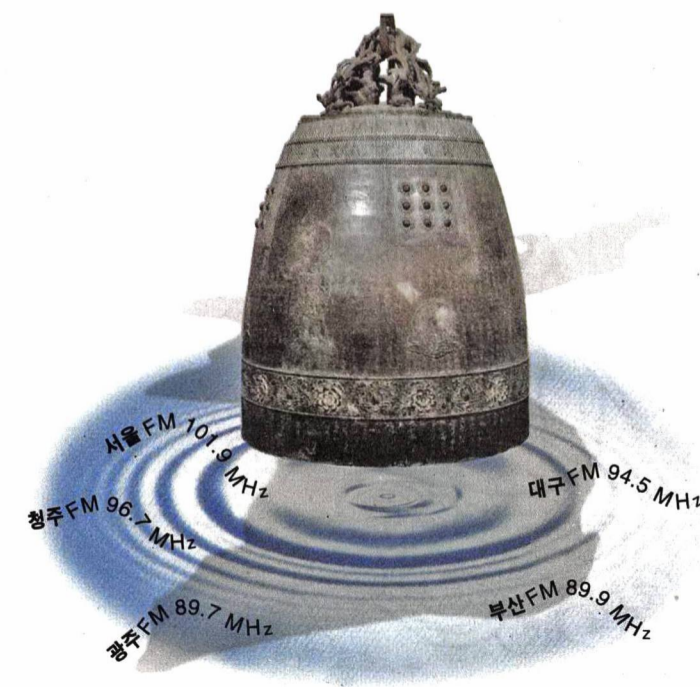
무의탁 노인 방문 외로움 달래줘

경주시 현곡면 하구리의 수계사(주교 혜산 대정사) 신정회 회원들은 인근의 복지법인 천우자애원(원장 이정숙)을 방문하여 무의탁 노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있다. 천우자애원은 경주 천마관광의 사장인 박재우씨의 원력으로 세워진 것으로 지난 94년 4월에 개원했다. 현곡면 상구리에 자리한 이 자애원은 2층 건물 2동과 단층으로 된 1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2층 2동 중 한동은 사무실과 식당, 집회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 한동은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한다. 1층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수용하고 2층은 비교적 몸이 건강한 노인들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단층 건물 1동은 목욕탕, 이발소, 그리고 휴식 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수용인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고 한다. 원생들은 거의가 노인들로서 현재 70여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이 77세로서 남자가 20여명, 여자가 50여명 정도라고 한다. 자애원에 들어 올 수 있는 자격은 무의탁 노인인 한하며 거동 불편자를 우선하여 받아 들이고 있으며 모든 시설과 숙식 일체는 무료이다. 자식이나 가족이 있더라도 국민자이거나 특별히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도 선발하여 받아들인다고 한다. 그 밖에도 천우자애원 내에는 자비사라는 사찰이 있어 부처님 오신날 등 여러 불교 행사를 치루고 있으며 종파에 관계없이 방문하는

모든 객승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놓았다고 한다. 수계사 신정회(회장 김순남)가 천우자애원과 인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1월부터이다. 수계사 교도로서 이발소를 운영하는 정자 보살이 노인들의 머리를 손질해 주다가 자애원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무료로 이발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다가 지난 새해 불공 기간 중에 주교인 혜산 정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자애원을 직접 방문하여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보살회인 신정회에 제안했더니 전 회원이 흔쾌히 받아들여 현재 매월 한 번씩 자애원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발, 청소 등은 물론 생신을 맞이하는 노인들을 위하여 떡, 과일 등의 음식과 함께 선물도 제공하고 그들을 위하여 불공도 해 준다고 한다. 밀교의 진언으로 이들의 쾌차를 기원하고 자애원의 발전과 도량청정을 기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지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 중 일부는 수계사를 방문하여 같이 진언염송을 하며 법회에 동참하고 있다. 날씨가 풀리면 이들의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신정회 측에서도 여력이 닿는대로 봉사의 폭을 넓혀 무의탁 노인들의 외로움을 달래 주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祝
삼일사 신축을 축하합니다

“깨침의 소리 나누는 기쁨”



불교방송은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함으로써
자비, 평등, 해탈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엄성의 구현과 사회의 정토했을 추구합니다.
불교의 현대화, 생활화, 대중화에
정성을 다하고 있는 불교방송은
정법구현을 통한 불국정토의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불교방송에 귀 기울이면
자비의 법음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일궈갈 것입니다.

BBS 불교방송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표전화 : (02)705-5114 팩스 : (02)705-5229